

나와 연결된 존재들을 발견하는 눈 밝은 일상 관찰자의 시선

『당근이세요?』

표명희 소설집



표명희 작가의 소설집 『당근이세요?』는 과거와 현재, 사건과 일상, 개인과 사회를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조망한다.

「딸꾹질」은 한일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던 2002년을 배경으로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구에 환호하던 시절이 그려진다. 뜨거운 환성과 응원 이면에는 1998년에 벌어진 경제 위기로 인한 국가 경제의 몰락, 그로 인해 발생한 가정의 위기가 감춰져 있다. 초등학생인 ‘지완’은 고작 축구 경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방문한 슈퍼에서 지완이 경험한 작은 ‘이변’에서 축구 중계를 보며 열광하던 관객들이 입에 붙은 양 반복하던 말인 ‘이변’의 의미와 힘을 체험케 한다.

「이상한 나라의 하루」의 주인공은 2020년대의 청소년 ‘나라’이다. 습관적으로 물건을 산 뒤 불필요한 물건을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엄마’의 모습은 소설을 읽고 있는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고 거래의 상대가 알고 보니 외국인 이주 노동자였다는 설정도, 나라의 절친한 친구가 베트남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사실도 전혀 어색하거나 생경치 않다. 나라가 맺는 사회적 관계는 과거의 세대에 비해 ‘우리’의 범위가 확장된 현시대 청소년의 모습을 상징한다. 기성세대들이 ‘존재한다고 믿어 온’ 자신과 타자와 사이에 그어진 선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로운 이웃들과 산뜻하게 살아가는 나라의 모습이 경쾌하다.

「오월의 생일 케이크」의 주인공 ‘민서’는 할머니 댁에 방문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한다. 사상 사고를 목격하며 받은 충격보다 민서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당시 겪은 철저한 무력감이다. 핸드폰을 꺼내어 신고를 하는 일조차 실패한 자신을 향한 실망감은 민서를 공포에 빠지게 한다. 겨우 도착한 할머니 댁에서 무기력하게 누워 있던 민서가 떠올린 것은 군 시절 광주에 투입되었다 돌아온 뒤 세상과 단절되어 지내는 큰아빠였다. 무력감을 중심에 두고 큰아빠와 자신을 나란히 둔 민서는 큰아빠가 곁에 있으면 다시 용기를 내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큰아빠와 민서의 연결을 통해 독자는 타인이 경험한 역사적 아픔을 자신의 이야기로 끌어안으며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개를 보내다」에는 반려견 ‘진주’와의 이별을 통해 성장하는 청소년 ‘진서’가 등장한다. 진서는 노쇠해 가며 천천히 죽음에 이르는 진주의 곁을 지키면서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배운다. 진서와 진주의 이야기는 걱정적인 사건 없이 일상 속에 작고 조용한 변화가 쌓이는 방식으로 그려지는데, 그 점이 현실성을 더하며 감동을 배가한다. 언젠가 수명을 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생명체와 생명체의 만남은 필연적인 이별을 조건으로 한다. 진주와 진서의 담담한 서사는 거대한 슬픔을 전

제하고 이루어지므로 더욱 소중한 주변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당근이세요?』의 주인공은 모두 관찰자로 존재한다. 세상의 변화를 읽어 내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며, 가까운 존재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통해 세계에 점점 깊이 투입한다. 이는 청소년 독자들에게 모든 개인은 사회적 존재이자 역사적 존재, 연결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과거—현재, 나—타자를 연결하는 작은 관심과 다정한 시선과 용기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수업의 초점

1. 관찰자의 시선을 통해 시대와 삶 이해하기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한다. 이들은 큰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과 관계 맺고, 작은 변화의 감각을 발견해 나간다. 작품 속 관찰자들의 모습을 쫓고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시대와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감각을 기를 수 있으며 조심스럽게 세상과 연결되려는 태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2. 일상의 경험이 가진 힘 발견하기

소설집에 등장하는 여러 주인공을 변화시키는 것은 격렬한 사건이라기보다 일상의 흔적에 가깝다. 하지만 이들이 경험한 일상적인 화소들은 인물의 감정과 생각에 변화를 일으키며 그들을 더 넓은 사람, 더 깊은 사람, 더 연결되는 사람으로 변모시킨다. 학생들은 작품 속 인물들의 변화를 통해 일상의 경험이 어떻게 삶을 움직이고 사람을 성장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다.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활동 내용	
1	읽기 전 활동	「딸꾹질」의 사회·문화적 배경 확인하기
2	읽기 중 활동	「딸꾹질」 읽기, 모둠 토의
3	읽기 후 활동	「딸꾹질」의 주제 도출하기
4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이상한 나라의 하루」 읽기, 모둠 토의
5	읽기 후 활동	「이상한 나라의 하루」의 주제 도출하기
6	읽기 후 활동	‘현재’를 상징하는 사회·문화적 상황 선정하기
7	읽기 전 활동	5·18 민주화 운동 배경지식 쌓기
8	읽기 중 활동	「오월의 생일 케이크」 읽기, 모둠 토의
9	읽기 후 활동	「오월의 생일 케이크」의 주제 도출하기
10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개를 보내다」 읽기, 모둠 토의
11	읽기 후 활동	「개를 보내다」의 주제 도출하기

「딸꾹질」

| 1차시 |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확인하기

활동 1~4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확인하기

— 「딸꾹질」의 배경이 되는 2002년은 1997년에 일어난 IMF 경제 위기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기이다. 국가적인 경제 침체는 여러 가정을 위기에 빠뜨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심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축구 약체로 꼽히던 국가들이 전통적인 강호를 꺾은 '이변'이 쏟아진 2002 월드컵은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경기들은 '어쩌면 우리도 잘 될 거야'라는 희망을 품게 만들기 충분한 서사였기 때문이다. 「딸꾹질」의 주제 의식에 가닿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읽기 전 활동으로 당대 경제 위기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한 뒤 모둠원과 공유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월드컵 직전까지의 대한민국 사회적 분위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고, 다음 차시에 후속되는 독서 활동에서 월드컵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점에서 힘을 줄 수 있었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사고의 힘을 키운다.

1.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1997년에 일어난 경제 위기와 관련된 용어들이다. 탐구하고 싶은 핵심어 하나를 택하여 25분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 보자. (단, 자료 수집 결과를 모둠원과 공유할 예정이므로 모둠원이 겹치지 않는 핵심어를 정하도록 한다.)

핵심어	(다음 중 하나의 핵심어를 정하시오.) IMF 구제 금융, 외환 보유고 위기, 대기업 부도, 대량 해고, 구조 조정, 명예 퇴직, 정리해고제, 금 모으기 운동,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년 실업, 대학생 휴학과 조기 취업, 가계 부채
의미	(핵심어의 의미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시오.)
조사한 정보	(핵심어와 관련된 사실, 사례를 5가지 정리하시오.)
당시 사람들이 받은 영향	(경제적/사회적/개인적 변화를 고루 답으시오.)
조사하며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조사한 뒤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느낀 점을 2~3문장으로 쓰시오.)

2. 각자 조사한 내용을 모둠원 앞에서 설명해 보자.

3. 1~2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경제 위기를 모둠 협동화로 표현해 보자.

4. 앞에서 활동한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의 상황에서 ‘당신’이 느낄 감정과 떠올릴 생각을 추측해 보자.

○ 당신은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엄마다. 뉴스에서 한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아 나라 전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우리 회사는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다. 주변에는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가진 돈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미래도 걱정이지만, 아이들이 더 걱정이다. 우리 가정은 버틸 수 있을까?

| 2차시 | 「딸꾹질」 읽기, 모둠 토의

활동 1~3 「딸꾹질」 읽기, 모둠 토의

— 「딸꾹질」을 읽고 모둠원과 대화 나누고 싶은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해 가볍게 대화하며 다음 차시에 이어지는 깊이 읽기를 준비한다.

1. 인상적인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가며 「딸꾹질」을 읽어 보자.

2. 책을 읽는 중 모둠원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질문이 떠오르면 아래의 칸에 써 넣어 보자.

○

○

○

3. 2에서 만든 질문에 대해 모둠원과 돌아가며 생각을 나눈 뒤, 모듬원의 발언 중 인상적인 것들을 메모해 보자.

| 3차시 | 「딸꾹질」의 주제 의식 도출하기

활동 1 월드컵이 일으킨 변화 파악하기

— 「딸꾹질」의 주제를 학생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월드컵이 인물들에게 일으킨 변화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구체화할 수 있다.

1. 「딸꾹질」에서 월드컵으로 인해 지완의 가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 보자.

인물	월드컵 전의 특징	월드컵 후의 특징
엄마		
아빠		
형		

활동 2 주인공의 변화 파악하기

— 월드컵을 즐기며 가족들이 변해 가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던 지완이 ‘이번’의 힘을 경험하며 이들에게 공감하는 과정은 월드컵이라는 ‘이번’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줘 준 일상을 버티는 힘을 짐작하게 한다. 지완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그가 ‘이번’ 앞에서 마음을 여는 모습을 확인하는 독서의 과정은 학생들에게 『딸꾹질』의 주제를 스스로 도출할 수 있게 돕는다.

2. ‘지완’이 슈퍼마켓에 간 후의 감정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



2.1. 지완을 변화하게 만든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인가?

활동 3 소설의 주제 도출하기

— 소설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표현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추측한다.

3. 다음은 이 소설에서 ‘이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번’이 속출한 2002 월드컵에 열광한 이유를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추측해 보자.

지난번 월드컵 우승국이었던 프랑스가 월드컵 본선에 처음 나온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비참하게 졌다.
“정말 이번이야, 이번.”
아빠가 해설자의 말을 받아 되풀이 했다. (9쪽)

“이번이야, 이번!”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에 들었을 때였다. 아빠는 ‘이번’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얘기했다. “이런 이번이 있어야 세상은 살맛이 나는 거야.” 엄마도 끼어들었다. “맞아, 이렇게 한 번씩 숨통을 뚫어야지. 세네갈이 프랑스를 이기고,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아빠도 신나게 말을 받았다. “흑인이 백인을 이기고, 작은 놈이 큰 놈을 이기고…… 공 하나가 그 모든 걸 가능케 해 주니 얼마나 대단해!” 나는 막대 소시지를 하나더 꺼낸다. “세상이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29쪽)

3.1.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이번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뒤 모둠원과 대화 나누어 보자.

활동 4 독자와 연결 짓기

— ‘이번’의 의미와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짓는다.

4. ‘이번’을 보며 얻은 희망에 기댄 순간, 혹은 ‘이번’을 경험한 순간을 짧은 글로 정리한 뒤 모둠원과 공유해 보자.

「이상한 나라의 하루」

| 1차시 | 「이상한 나라의 하루」 읽기, 모둠 토의

활동 1~2 「이상한 나라의 하루」 읽기, 모둠 토의

— 「이상한 나라의 하루」를 읽으며 주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는다. 교사가 제시한 질문을 두고 모둠원들과 대화를 하며 다음 차시부터 진행되는 깊이 읽기 활동을 준비한다.

1. 소설의 표지와 제목을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을 짐작해 보자.

2. 다음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가며 「이상한 나라의 하루」를 읽어 보자.

- 나라가 관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장면
- 나라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드러나는 장면

3. 다음의 질문에 대해 모둠원과 대화 나누어 보자.

- 나라가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 나라가 사람들의 '뒷모습'을 찍는 이유는 무엇일까?

| 2차시 | 「이상한 나라의 하루」의 주제 도출하기

활동 1 등장인물의 특성 정리하기

— 인물 카드를 만들어 등장인물의 특성을 정리한다.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에게 어울리는 소지품을 상상하는 활동은 읽기에 능숙하지 않아 내용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주요 인물의 특성을 쉽게 인지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다음의 카드에 등장인물을 상징하는 물건을 그린 뒤 그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한 이유를 쓰세요.

- (1) 모둠이 인물 카드로 표현하고 싶은 인물을 네 명 선택합니다.
- (2) 모둠원들과 상의한 뒤 각 인물을 그림으로 표현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학생 한 명은 두 장의 그림 카드를 맡아 제작합니다. 역할을 나눌 때에는 모든 인물의 물건이 고루 그려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라

나라 엄마

보라

나영

보라 엄마

청소기 거래 청년

6층 아저씨

홈리스 할머니

활동 2 나라가 본 2025년의 한국 사회 정리하기

—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나라가 바라본 2025년의 한국 사회의 특징을 정리한다.

2.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바탕으로 나라가 본 2025년의 한국 사회의 특징을 모둠원과 상의하여 정리해 보자.

2.1. 나라가 본 2025년의 한국 사회의 특징이 실제와 어느 정도로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수직선 위에 표시해 보자.



활동 3 '관찰자' 나라

— 주변의 사람, 상황들을 관찰하는 인물이라는 주인공의 특성이 지닌 함의를 파악하며 학생들이 작가가 전하려 한 주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작가가 나라를 다른 사람의 뒷모습을 찍는 취미를 지닌 청소년으로 그린 이유를 추측해 보자.

3.1. 나라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특성을 모둠원과 토의해 보자.

3.2. 나라와 같은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자.

활동 4 '관찰자'가 되어 보기

— '관찰'을 통해 달라지는 일상을 경험한 뒤, '나라'와 같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섬세히 관찰하는 시선을 가져 본다.

4. '나라'와 같이, 하루 동안 내 주변의 '뒷모습'의 사진을 5장 찍은 뒤 그 의미를 한 줄로 기록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활동 1~2 우리들의 '평범한 하루' 정리하고 발표하기

— 모둠원이 하루 동안 찍은 '뒷모습'들을 모아 우리들의 '이상한 하루'로 정리하며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사회 현상의 특징을 정리한다.

1. 모둠원들과 각자가 찍은 '뒷모습' 사진을 설명하며 공유한다.

2. 모둠원들이 찍은 사진을 모두 모아 '우리들의 평범한 하루'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과 상황들을 패들렛에 정리한다.

3. 모듬이 제작한 결과를 학급 구성원 앞에서 발표한다.

「오월의 생일 케이크」

| 1차시 | 5·18 민주화 운동 배경지식 쌓기

민주주의는 배려와 존중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5·18민주화운동을 5분 18초에 순식 정리!

국가보훈부
구독자 8.51만명

1.2천 5:14 / 5:18 공유 다운로드 오소리인 저장 음소폰

활동 1~2 5·18 민주화 운동 배경지식 쌓기

— 국가보훈부에서 제작한 5·18 민주화운동의 영상 자료를 본 뒤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들을 모둠원과 공유하며 작품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을 형성한다.

1.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영상 자료를 보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자.

2.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탐구하고 싶은 핵심어 하나를 택하여 25분 동안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해 보자. (단, 자료 수집 결과를 모둠원과 공유할 예정이므로 모둠원이 겹치지 않는 핵심어를 정하도록 한다.)

핵심어	(다음 중 하나의 핵심어를 정하십시오.) 신군부, 계엄령, 서울의 봄, 전남도청, 금남로, 5·18 묘역, 계엄군, 시민군, 윤상원, 위르겐 힌츠페터, 오월어머니회, 『화려한 휴가』, 『소년이 온다』
의미	(핵심어의 의미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십시오.)

조사한 정보	(핵심어와 관련된 사실, 사례를 5가지 정리하시오.)
조사하며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조사한 뒤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느낀 점을 2~3문장으로 쓰시오.)

3. 각자 조사한 내용을 모둠원 앞에서 설명해 보자.

| 2차시 | 「오월의 생일 케이크」 읽기, 모둠 토의

활동 1~3 「오월의 생일 케이크」 읽기, 모둠 토의

—「오월의 생일 케이크」를 읽고 모둠원과 대화 나누고 싶은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해 가볍게 대화하며 다음 차시에 이어지는 깊이 읽기를 준비한다.

1. 인상적인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가며 「오월의 생일 케이크」를 읽어 보자.

2. 책을 읽는 중 모둠원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질문이 떠오르면 아래의 칸에 써 넣어 보자.

○	
○	
○	

3. 2에서 만든 질문에 대해 모둠원과 돌아가며 생각을 나눈 뒤, 모듬원의 발언 중 인상적인 것들을 메모해 보자.

| 3차시 | 「오월의 생일 케이크」의 주제 도출하기

활동 1 민서의 감정의 흐름 파악하기

— 주인공의 감정의 흐름을 그래프로 그리며 작품 속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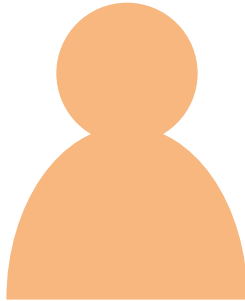
1. 민서가 경험한 상황에 따른 감정을 추측하여 그래프로 그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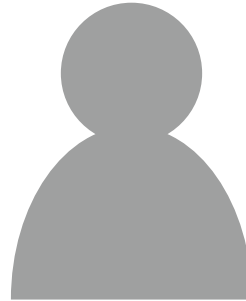
활동 2 민서와 큰아빠의 공통점 도출하기

— ‘무력감’을 중심으로 민서와 큰아빠의 공통점을 정리한 뒤, 민서가 큰아빠를 통해 위안과 위로를 얻은 이유를 추측한다.

2. 민서와 큰아빠가 겪은 일과 당시의 생각, 감정을 그림 위에 정리해 보자.



교통 사고를 목격한 민서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한 큰 아빠

2.1. 모둠원과 함께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해 보자.

2.2. 다음의 내용에서 민서가 큰아빠가 곁에 있으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를 추측해 보자.

민서는 왔던 길을 혼자서 갈 자신이 없었다. 아니, 그보다는 큰아빠와 같이 가 보고 싶었다. 예전처럼 큰아빠와 다시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 그 상황에 다시 한번 처한다면, 무엇보다 큰아빠가 곁에 있으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전과는 분명 다를 것 같았다. 아니 달라야 할 것 같았다. (109쪽)

2.3. 작가가 민서와 큰아빠가 비슷한 경험을 겪고 감정을 경험하는 상황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지 모둠원과 토의해 보자.

활동 3 앞으로의 삶 상상하기

— 작품은 ‘생일’이라는 화소를 통해 큰아빠를 향한 축원의 마음을 보낸다. 학생들이 생일, 케이크 등에 담긴 함의를 도출하며 작가가 전하려 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소설이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불며 끝나는 이유를 모둠원과 토의해 보자.

3.1. 다음 장면에서 큰아빠가 기원한 소원을 자유롭게 추측해 보자.

“촛불 끄기 전에 소원부터 빌어야 해요.”

어느새 상 앞에 돌아와 앉은 큰아빠에게 민서는 조건을 하나 더 붙였다.

할머니도 생일상을 향해 다시 돌아앉았다.

큰아빠는 민서의 말에 알았다는 듯 눈을 잠시 감았다 떴다.

“이제 꺼도 돼?”

“네.”

민서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큰아빠는 헛— 휘파람 불 듯 촛불을 껐다. 단번에 촛불이 꺼졌다. 민서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아슬아슬했던 만큼 감동이 컸다. 초들이 사라지자 케이크 중앙을 장식하고 있던 글자가 또렷이 들어났다.

‘축! 생일.’

「개를 보내다」

| 1차시 | 「개를 보내다」 읽기, 모둠 토의

활동 1~2 「개를 보내다」 읽기, 모둠 토의

— 「개를 보내다」를 읽고 모둠원과 대화 나누고 싶은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해 가볍게 대화하며 다음 차시에 이어지는 깊이 읽기를 준비한다.

1. 인상적인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가며 「개를 보내다」를 읽어 보자.

2. 책을 읽는 중 모둠원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질문이 떠오르면 아래의 칸에 써 넣어 보자.

○

○

○

3. 2에서 만든 질문에 대해 모둠원과 돌아가며 생각을 나눈 뒤, 모둠원의 발언 중 인상적인 것들을 메모해 보자.

| 2차시 | 「개를 보내다」의 주제 도출하기

활동 1 진서의 가상 일기 쓰기

— 「개를 보내다」의 주요한 순간에 진서가 느낀 감정을 일기로 써 보며 진주를 돌보고 보내는 과정에서 진서가 배운 것

들을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1. 다음 세 장면 중 하루를 택해 진서의 가상 일기를 써 보자.

진주를 자신의 방에 들인 날 (133쪽)	진주가 3주 만에 제대로 된 똥을 눈 날(137쪽)	진주의 뺨가루가 묻힌 은행나무를 보고 온 날(140쪽)

1.1. 모둠원이 쓴 진서의 일기를 읽은 후 답글을 달아 일기에 대한 칭찬을 남겨 보자.

1.2. 진주를 돌보며 진서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둠원과 대화 나누어 보자.

활동 2 돌봄의 경험을 나누며 의미 발견하기

— 자신이 돌봄을 받았거나 누군가를 돌봤던 경험을 떠올려 모둠원과 공유하며 누군가를 돌보는 행위의 의미를 도출한다.

2. 자신이 누군가를 돌보거나 돌봄을 받은 경험을 떠올려 모둠원과 대화 나누어 보자. 직접 경험한 일이 없다면 책이나 영화, 유튜브 영상에서 본 일들을 소개해도 좋다.

2.1. ‘돌보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모둠원과 정리해 보자. 돌봄은 그것을 주는 존재와 받는 존재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2.2. 진주와 진서가 서로 주고받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진서만이 진주를 돌보았다고 볼 수 있을까?

활동 3 진주가 되어 진서에게 편지 쓰기

— 반려견 진주의 입장에서 진서를 향해 쓰는 편지를 작성하며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한다.

3. 진주가 진서에게 쓰는 편지를 쓴 뒤 모둠원과 바꾸어 가며 읽어 보자.

3.1. 편지를 직접 쓰고, 모듬원의 편지를 읽으며 배우고 느낀 바를 정리해 보자.